

2011. 3. 9.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3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 개원 40주년 맞은 KDI, 재도약 원년 선포

## KDI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 일 시: 2011년 3월 10일(목) 17:00
- 장 소: KDI 별관 대회의실

-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KDI(원장: 현오석)는 3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조 순 前 부총리, 김정렴 前 대통령비서실장, 역대 원장과 연구진 등 관련 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 현오석 KDI 원장 개회사, 김만제 초대 KDI 원장 기념사,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조 순 前 경제부총리 및 김황식 국무총리 축사로 이어질 기념식에서는 김정렴 前 대통령비서실장이 '박정희 前 대통령과 KDI'를 주제로 기념 강연할 예정임.
- KDI는 개원 40주년을 맞아 올 초 연구원 직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새 슬로건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는 KDI'와 40주년 기념 엠블럼을 제작, 발표하고 세계적인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의지를 천명
- 행사 당일 KDI는 1971년 이래의 주요 연구 성과, 세미나와 국제 컨퍼런스 등 주요행사 및 직원 활동을 기록한 「개원 40주년 기념 사료전」을 진행하고, 사진전의 내용을 도록화한 『40주년 기념 화보집』을 제작, 배포함.

- 현오석 원장은 “세계경제의 통합화와 동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은 한국 사회 전체의 시급한 과제”라며, “개발 연대 이후 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방향을 설계해 온 KDI는 향후에도 선제적 이슈 발굴과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미래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실천적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현 원장은 “KDI의 40년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KDI 연구전통의 수월성과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KDI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연구역량 향상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경제정책 연구에 대한 수요계층이 다양화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KDI 정책대안의 현실 적합성, 부문 간의 일관성, 객관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핵심적 연구역량의 집중·강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담보할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올 초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발표한 “2010 글로벌 씽크탱크 순위”에서 세계 75대 선도적 씽크탱크, 아시아 지역 경제분야 최고의 씽크탱크로 평가받은 데 대해 현 원장은 “연구 수월성 확립을 위한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평가 결과를 KDI가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의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중 하나가 되도록 기반을 닦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힘.
- 2012년으로 예정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현 원장은 “한국 경제의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랄 수도 있는 현재의 건물이 사라진다면 대단히 안타까울 것”이라면서도, “1972년 현재의 홍릉 연구단지에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의 홍릉 시대를 마감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KDI의 모든 연구 성과는 장소와 관계없이 수월성과 심도를 더해갈 것”이라며 KDI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함.

- 현 원장은 KDI 개원 4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정책연구소로서 21세기 선진경제 구현을 위한 KDI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보다 글로벌한 시각의 접근을 통해 선제적, 종합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김만제 초대 KDI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연구원 설립 당시와 초창기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개발연대를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현명한 안내자였던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물론 설립 초기의 한국·경제 사회의 근대화와 사회보장제도 연구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선진화를 가늠한 80년대의 많은 연구들과 IMF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 골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90년대와 2000년대의 재벌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정부개혁 등 한국 사회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에 토대가 된 수많은 정책 대안 마련에 헌신적으로 매진해왔다”고 밝힘.
- 김 초대원장은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객관성, 투명성, 독립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도 KDI가 자신의 위상과 책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시대의 변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한편, 미래를 향한 높은 비전과 전략을 담은 양질의 연구 성과를 통해 미래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함.
-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경탄할 만큼 단기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놀라운 고속성장은 국민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주도적으로 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해 온 KDI의 역할이 재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며, 한국 경제가 겪어 온 수많은 부침과 전환의 중심에서 늘 해법과 방향을 제시해 준 KDI의 개원 40주년을 축하함.

- 허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 심화, 가속화되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책임자는 바로 KDI라고 믿고 있다”고 밝힘.
- 조 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축사에서 “KDI는 지속적 번영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키 위한 정책 개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있을 수 없다”라며, “정부가 요구하는 단기적 현안의 해결책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길을 밝혀 주길 KDI에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함.
- 조 前 부총리는 KDI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데는 연구진의 수월성과 사명감은 물론 체계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 경제사회 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의 뒷받침이 있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특히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부와 소득의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
- 김황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KDI가 4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국가 발전에 든든한 효자노릇을 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으로 우뚝 선 것에 대해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코스트 푸시(cost-push) 요인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의 침체가 야기되고 수출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청년실업·양극화,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복지비용 상승 등 정책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면서, “KDI가 당면한 도전 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비전과 비책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 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김 총리는 또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부패와 특권이 없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며, “KDI의 선배들이 지난 40년 동안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 왔듯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졌다는 사명감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함.

□ 김정렬 前 대통령비서실장은 기념강연을 통해 경제개발5개년계획 입안에서 시행까지의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박정희 前 대통령은 KDI를 경제기획원 산하 연구소가 아니라 필요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되 인사, 자금운용,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사재 백만원을 설립기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며 KDI에 대한 박 前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을 회고함.

○ 김 前 대통령비서실장은 “박 前 대통령은 5.16 직후 혁명정부 시절에 이미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7개월 만인 1962년 1월 5일에 발표했다. 짐무실 옆방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회전식으로 작성해 비닐로 싸 부문의별 계획표를 수시로 직접 점검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라고 밝힘.

○ 박 前 대통령은 1972년 7월 KDI 흥릉 본관 개관 이전에도 두 차례나 공사 현장을 시찰할 만큼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으며, 김만제 초대 KDI 원장이 직접 해외를 돌며 섭외한 선임연구원 11명이 귀국하자 몇 차례나 KDI에 들러 이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곤 했음.

○ 향후 KDI는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부문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연구진의 보고에 박 前 대통령은 “그간에는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적인 분석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토론에만 의존한 측면이 있었는데, KDI가 생겨 마음 든든하다”고 피력했음.

○ 김 前 대통령비서실장은 “박 前 대통령 생존 시의 방위세 신설, 1974년 제1차 석유위기 대책인 1.14 대통령긴급조치, 사회보장연금법 등에 대한 정책제안은 물론, KDI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성과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며, “특히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를 주는 위치로 올라선 지금,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KDI는 물론 국가의 위상 제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함.

□ KDI는 개원 4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4월 28일 신라호텔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씽크탱크 역할 변화」 제하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4월 29일에는 직원 가족을 초대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 이밖에도 5월의 「거시경제 석학 초청 세미나」, 9월의 『KDI 40년사』 발간 및 기념 세미나, 10월의 「KDI 개원 40주년 기념 하버드대 공동 연구사업 최종보고회」 등 다양한 개원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 첨부#1. KDI 개원 40주년 기념식 프로그램
- ◆ 첨부#3. 개회사, 기념사, 축사, 기념강연 요약
- ◆ 첨부#3. KDI 40년 발자취: 번영을 향한 경제설계에서 선진 경제로의 도약에 이르기까지

## [첨부#1] KDI 개원 40주년 기념식 프로그램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 장소: KDI 별관 대회의실

시 간	내 용
17:00	등록 및 리셉션
<b>1부. 개원 40주년 기념식</b>	
17:30 ~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는 KDI』 상영
17:40 ~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기념사 김만제 KDI 초대 원장
17:45 ~	축 사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조 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18:00 ~	기념강연 김정렴 前 대통령비서실장

- 장소: KDI 본관

<b>2부. 개원 40주년 기념 사료전 및 만찬</b>	
18:20 ~	기념 사료전
18:40 ~ 20:00	만 찬

## [첨부#2] 개회사, 기념사, 축사, 기념강연 요약

### [ 개회사 ]

현오석 KDI 원장

우선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KDI 개원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님,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루어주신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KDI가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오랜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런 훌륭한 전통을 이어 받아 더 훌륭한 기관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선배님들은 KDI의 전통을 세워 주신 분들이며,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분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DI는 1971년 3월 설립 이래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국가적 아젠다에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법경제, 북한경제 등 연구 분야에서 출발하여 경제정보센터, 공공투자 관리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 국제정책대학원 등 그 기구와 기능 또한 다양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연구의 수월성 확립을 위한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에 힘입어 KDI는 경제 개발 분야에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발표한 "2010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에서도 세계 75대 선도적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분야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오히려 KDI가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중의 하나가 되도록 그 기반을 닦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연구역량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채널이 크게 확장되고 경제정책 연구에 대한 수요계층이 다양해지면서 KDI 정책대안의 현실 적합성, 부문 간의 일관성, 객관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핵심적 연구역량의 집중강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담보할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KDI는 한 치의 느슨함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KDI는 과거 발전의 자취를 더듬어 우리의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 희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내외 귀빈 여러분과 KDI의 선배, 동료들께서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맞춰 성장해 온 KDI가 앞으로도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전의 격려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과거 성과에 대한 치밀한 반추를 통해 미래의 비전과 책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KDI의 다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제 이 기념식에 이어 KDI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료전과 사진전도 준비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역사에 비해 자료 제약 등으로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귀중한 자료이고 연우회원 선후배들께는 젊은 날의 추억을 되새겨볼 소중한 비망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같이 참여하여 KDI가 개척해 나아갈 새로운 발걸음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기념사 ]

### 김만제 초대 KDI 원장

바쁘신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KDI 개원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루어주신 김정렴 전 대통령 비서실장님과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I 초대원장 김만제입니다.

KDI가 설립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니, 초대 원장으로서 감개무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KDI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역대 원장님들을 비롯한 연구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전을 돌이켜보면 우선 개인적으로, 연구진을 스카우트하러 해외로 뛰어다니던 일, 연구원 설립에 관련된 다양한 준비 작업들을 챙기던 일, 먼지 날리던 흥릉 본원 건물 공사 현장을 살피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모두들 젊고 패기만만했었지요. 조국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밤낮 없이 땀 흘리던 친구들의 희망찬 모습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60년대 말에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관을 설립해야겠다는 구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민족의 생존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던 때였지요. 하지만 당시 국내에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획모형을 작성하거나, 정책 입안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담당할만한 조직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원조달문제로 68년에 시작된 KDI 설립 작업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요. 1970년에 미국 원조당국의 협조로 대총자금에 의한 기금 불입이 가능하게 되고 나서야, 한국개발연구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2월에 공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71년 1월 초순에 연구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1일에는 정식으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연우,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 KDI는, 대한민국 경제 자립 초기, 이른바 개발연대의 산 증인 이자 현명한 안내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비롯해,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추진한 '한국경제 사회의 근대화 연구', '안정과 성장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근대화의 토대를 모색했고, 경제개발과 직결되는 주요 부문들에 관한 정책연구와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균형 잡힌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후에도 KDI는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제 자립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선진화를 가늠한 80년대의 많은 연구들과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 골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안하였고, 이후 재벌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정부개혁 등 한국 사회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에 토대가 된 90년대와 2000년대의 여러 작업들을 돌이켜볼 때, KDI가 기울여 온 정책개발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DI가 걸어온 길에는 분명 수많은 도전과제들이 함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개발연대에 형성된 KDI의 기능과 역할에 재정립이 요구되기도 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객관성, 투명성, 독립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물론 KDI가 나아가 갈 향후의 도정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비판, 견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펜실베이니아 대학 '씽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발표하는 글로벌 씽크탱크 순위에서 KDI가 전세계 75대 선도적 글로벌 씽크탱크로 선정되었고,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연구소로는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고, 초대 원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KDI 구성원으로서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초대 원장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KDI가 자신의 위상과 책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시대의 변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한편, 미래를 향한 높은 비전과 전략을 담은 양질의 연구 성과를 통해 미래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선배들은 같은 바람과 믿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역 후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지요.

다시 한 번, KDI 개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  
쓰신 현오석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 축 사 ]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먼저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김정렴 前 대통령비서실장님, 조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님, 현오석 KDI 원장님,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여러분을 모시고 'KDI 개원 40주년'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KDI는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할 정도로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은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KDI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많은 부침과 전환기를 겪었지만, 그 중심에 늘 KDI가 굳건히 서서 해법과 함께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무렵 KDI가 개원한 것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존자원은 물론 산업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댈 곳은 인적자원밖에 없던 당시 우리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KDI의 등대 역할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KDI는 주요 정책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DI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경제는 기업은 물론 국민 계층 간에도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국민통합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마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와 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100세 시대'의 도래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자칫 국민연금 등의 재정파탄은 물론 고령층 부양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우리 경제사회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KDI가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먼저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 역할의 책임자는 바로 KDI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 개원 40주년이 된 KDI가 향후 100주년이 될 때까지를 내다보며 KDI의 존재의의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깊이 고민한다면 앞에서 당부 드린 해법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져 행복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초일류국가로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KDI 구성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불과 40여년 만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KDI의 '개원 4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축 사 ]

### 조 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KDI 개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공화국 당시 우리 경제가 자립경제를 위한 이룩을 시작할 때, 국내 최초의 싱크탱크였던 KDI는 영롱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당시의 KDI는 경제개발계획, 경부고속도로 등과 함께 고도성장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우리 경제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DI가 이렇게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연구진의 수월성과 사명감, 그리고 경제사회의 발전 정책은 체계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정부 의지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KDI가 수행하는 연구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KDI가 그 초기부터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의 영향 하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KDI에 대한 국내외의 신임과 평판은 결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KDI는 탄탄한 연구에 바탕을 둔 정책 제언을 소신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정책 환경과 정치가 그것을 십분 보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개발연대를 지나고, 세계화의 명암이 드러나면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찰나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KDI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 중산층의 몰락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KDI는 지속적 번영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KDI는 앞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단기적 현안의 해결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길을 밝혀 주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KDI의 개원 40주년을 축하하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 축 사 ]

김황식 국무총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I의 개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KDI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맥을 같이 해오면서 눈부신 업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곳 현관에 들어서면서 '번영을 위한 경제설계'라는 휘호를 보았습니다만, KDI가 1970년대 국가경제 부흥이라는 국민적 염원아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뒷받침함으로써 오늘의 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97년 말 외환위기와 3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서도 여러분의 빛나는 정책대안은 위기극복의 청사진을 제시해 줬으며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연구소는 KDI를 세계 6천여 연구기관 중 75대 선도적 싱크탱크로 발표하고 아시아지역 경제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KDI는 4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국가발전에 든든한 효자노릇을 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KDI 소속 연구원과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도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올해는 5%대의 성장과 함께,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책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않은 않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코스트 푸시(cost-push) 요인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의 침체가 야기되고 우리의 수출여건도 악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률·양극화 문제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 보장과 부패와 특권이 없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KDI가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비전과 비책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를 명실 공히 선진일류국가로 이끌어 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원 40주년은 사람의 생애로 치면 불혹의 나이입니다. 더러는 연구여건이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보다 편안한 길로 눈을 돌리고 싶은 순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배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 왔듯이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매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기념강연: 박정희 前 대통령과 KDI ]

김정렴 前 대통령비서실장

### 1.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 혁명정부는 자유당정부의 부흥부를 경제기획원으로 개편하고, 부흥부의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참고로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 수립에 착수해 7개월 만인 1962년 1월 5일에 발표

- 박정희 대통령은 집무실 옆방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비닐로 포장한 부문별 계획표를 회전식으로 설치해 수시로 직접 진도를 점검할 만큼 5개년 계획을 중시했음.
- 또한 5개년계획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과학심의회의를 설치하고 평가교수단을 구성·운영하기도 했음.

□ 본인이 상공부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1964년 6월, 5개년계획 상황판을 점검하던 박 대통령은 경비전화를 통해 상공부 소관 공장의 진도 부진을 여러 번 힐책했음.

- 이에 본인은 "자유당정부 부흥부의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집행계획이 아니라 Vision과 Forecast로 작성한 것으로 혁명정부는 여기에 각 부처의 개발계획을 받아 보완 집대성해 5개년계획을 만든 것"으로,
- "이승만대통령 시절 10달러 이상의 외화사용은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해외공장 시찰은 전혀 없었고", "상공부의 경우, 국·과에서 5개년계획에 한 개의 프로젝트라도 올리지 못하면 존폐가 우려된다고 생각하여 외국 엔지니어링 회사의 국내주재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계상한 것인데, 기초가 되는 투입-산출 (input- output) 산업연관 통계도 1963년에 들어서야 작성되기 시작한 바, 5개년계획안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Vision과 Forecast"라고 설명함.
- 이후 상황실이 철폐되고, 평가교수단의 임무도 5개년계획의 진행 평가가 아니라 인플레이, 환율, 미곡 매상정책 등 현안을 연구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경제성장률이 계획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개년계획이 잘 되어서라기보다는 1963년 1월부터 64년 8월 까지 총 25백 만 달러 (1만 달러 이상 반입은 21건, 11백 만 달러)에 달하는 재일동포의 재산도입, 즉 중고시설의 도입 설치로 의류, 봉제품, 가발, 전기제품의 생산과 수출 증대에 기인한 바가 큼.

## 2. KDI의 설립과 초기 연구 업적

- 5개년계획 작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제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낀 당시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이희일 씨가 김학렬 차관의 동의를 구해 미국대외원조기관(USOM)이 사용하는 대총자금의 잉여금과 미국 원조당국(USAID/K) 차관을 얻어 KDI 설립안을 작성하고, 이후 부총리가 된 김학렬 씨가 박 대통령에 건의함.

- 박 대통령은 KDI를 설립하되 경제기획원 산하 연구소가 아니라, 필요 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되, 인사, 자금운용,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설립기금으로 사재 1백 만 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KIST 설립과정과 같은 것이었음.
- 박 대통령은 흥릉 KDI 본관 건물 공사 기간 중 두 번이나 현장을 시찰할 만큼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음.

- 박 대통령은 해외에서 열 한 명의 선임연구원들이 귀국하자 KDI를 몇 차례 방문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음.

- 연구원들은 "향후 KDI는 우선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음.
- 박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적인 분석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토론에만 의존한 측면이 있어 허전했는데, KDI가 생겨 이제 마음 든든하다"고 밝힘.
- 박 대통령 생존 시 KDI는 방위세 신설, 1974년 제1차 석유위기 대책인 1.14 대통령긴급조치, 사회보장연금법 등의 중요한 정책 제안을 상신했음.

- 박 대통령은 준공식 날 원장 이하 연구원들을 신라호텔 영빈관에 초대해 축하연을 열어주며 격려했는데 밴드를 불러 젊은 연구원들이 여흥을 즐기도록 배려하기도 했음.
-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시절, 개각 때 마다 내무, 법무, 국방, 무임소장관을 제외한 부처의 장관을 복수 추천하라는 지시에 김만제 원장을 경제기획원 부총리, 재무부장관 후보로 두 차례 추천했으나, 박 대통령은 "KDI는 경제기획원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이고, 김만제 원장이 잘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추천대상에서 빼라"라고 지시한 후 서거 때까지 바꾸지 않았음.

□ **KDI는 1975년부터 3년에 걸쳐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공동으로『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는 보고서 12권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였음.**

- 하버드 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미국 측 연구책임자 메이슨 교수는 총론에서 "박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이루었으나, 정치에 있어서는 억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소신껏 비평하기도 했음.
- 당시 상황을 회고해 보면, 휴전후 소련이 북한의 중화학공업 재건을 위해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동독, 헝가리, 체코에게도 방위산업의 한 부문씩을 원조하도록 함에 따라 196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전력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음.
- 1967~68년 2년 동안 무려 570건이 넘는 남북 간 교전사태가 발생했고, 북한은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 습격, 美 정보함정 푸에블로호 납치, 삼척·울진지구의 1개 중대 병력 침투, 휴전선 이남까지 침투할 수 있는 3개의 땅굴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발행위를 계속했음.
- 한편,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美 7사단을 철수시켰으며, 카터 대통령은 美 지상군 완전철수 공약을 발표했다.
- 마침내 월남과 캄보디아가 패망하면서 동아시아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공산화되었음.

- 1970년대 들어 적십자회담을 필두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으나, 북한은 반공법 및 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데 더해 '우리 민족끼리 논의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언론을 일부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음.

☞ 메이슨 교수의 연구보고서 국문판은 박 대통령 서거 후인 1981년에 출판되었는데, 박 대통령이 생전에 접했다 해도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한 고심(苦心)을 모르는 태평성대의 논평'이라고 가볍게 말씀했을 것으로 사료됨.

### 3. 못 다한 이야기

□ 박 대통령은 1978년 제9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유신헌법 완화 개정 작업을 지시했으며, "임기 종료 1년 전에 하여해서 김종필 씨를 다시 총리로 임명한 뒤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기고, 그 다음 대통령선거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 경합하도록 하겠다"라는 결심을 피력했음.

□ 박 대통령은 "경제를 이만큼 일으켰고, 카터의 美 지상군 완전 철수 때까지 안보 기반을 단단히 다져 놓았으니, 나라를 위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이젠 나도 좀 쉬면서 애들 시집, 장가나 보내야겠다"라며 인간적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음.

□ 박 대통령 서거 후 남겨진 재산은 신당동의 일본식 단층 35평짜리 주택과 성금으로 받아쓰고 남은 정치자금 9억 원이 전부였음.

□ 박 대통령은 대원군 집권 4년 후인 1867년에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단행해 문호를 개방하고 부국강병을 기치로 농업을 진흥하고, 생사와 일본차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경공업과 이후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경제대국이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벌여 설립한 만주국에서 중화학공업을 일으킨 과정을 만주군관학교 시절 견문하기도 했음.

□ 박 대통령은 5개년 계획과는 관계없이 ①사방사업을 위한 강제노동인 부역(賦役)제, ②식목일 외의 검목일(檢木日) 및 육림의 날 지정, 산림 도벌(盜伐)방지를 위한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 등의 산림 정책, ③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개발, ④고속도로 건설, ⑤한해(旱害) 상습지역 지하수 개발용 관정(管井) 30만정 타설(打設), ⑥농촌과 도시의 청소년을 위한 기능공 양성 정책, ⑦새마을운동, ⑧대전 이북은 추워서 안 된다는 비닐온상 재배를 연구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한 온상재배, ⑨국제규모에 한참 모자랐던 종합제철과 석유화학공업 육성, ⑩평상시에는 70%의 민수품(民需品)을 생산하되 유사시에는 100%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육성 등 수많은 독창적 시책을 창안(policy innovation)해 경제 개발을 이끌었음.

□ 1993년 World Bank의 초대로「東아시아로부터의 교훈」이라는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강연했는데, World Bank는 이후 본인의 회고록인『한국경제정책 30년사』중 박 대통령 시절 부분만을 따로 정리한『Policymaking on the Frontlines』를 첫 번째 경제정책수립 회고시리즈로 출판했음.

- World Bank는 책을 출판하면서, 일차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자유진영으로 전환하는 舊 공산권 국가의 공무원을 위해 출판하는 것이긴 하나,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정치학(Political Science),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지역 연구(Area Studies)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음.

□ 그간 우리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온 역대 KDI 원장, 그리고 연구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함.

□ KDI가 박 대통령이 독창적으로 추진했던 경제개발 정책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 경제사를 바로잡고,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첨부#3] KDI 40년 발자취: 번영을 향한 경제설계에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에 이르기까지

### 1. KDI의 역사와 전통

- KDI는 1971년 3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경제 번영에 이바지할 목적 하에 사회과학분야로는 최초로 설립된 종합연구소로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국가장기비전 수립에 힘써 왔음.
- KDI는 40년 역사에 걸쳐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법경제, 북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기여해 왔음.
- KDI는 40년의 역사 속에서 정관계에 큰 이름을 남긴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관계, 정계, 학계, 기업 등 각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KDI 출신 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KDI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G20 서울 국제 심포지엄」에서 'G20 체제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함과 아울러, 개발의제를 중심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음.
- 또한 KDI는 올해 2월, 펜실베이니아 대학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씽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TTCSP'이 매년 발표하는 "2010 글로벌 씽크탱크 순위"에서 세계 75대 선도적 씽크탱크로 선정됨.

- 세계 6,480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0년 조사에서 KDI는 세계 75대 선도적 싱크탱크, 아시아 지역 1,200개 싱크탱크 중 최고의 경제분야 연구소, 국제개발분야에서는 세계 22위의 연구소로 선정됨.

## 2.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해 온 KDI 40년

□ 1971년 3월 설립된 KDI는 개발연대의 상징적 국책연구기관으로 경제개발5개년 계획 작성에 적극 참여했으며, 40년 역사의 매 시기마다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핵심적 토대가 될 수많은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 1970년대: 한국경제의 도약기를 맞아 경제개발과 직결되는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선도적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 연구의 기초를 쌓고 한국경제의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음.
- 1980년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고, 광범위한 사회정책 분야의 기초통계 정비, 남북 경제협력의 단초 제공 등으로 연구방향을 보다 폭넓게 확장했음.
- 1990년대: 거센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으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골격과 구조조정의 핵심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힘썼음.
- 2000년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경제 선진화를 위한 경제제도 개혁 및 시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2011년 3월 현재 KDI는 본원과 4개의 부설기관, 세계 최고 수준의 박사 인력 73명을 포함해 총 294명으로 구성되어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

○ 본원

- 거시경제연구부: 거시경제에 대한 기초연구와 국내외 거시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경제전망,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제시
- 금융경제연구부: 금융시장동향 분석 및 금융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 산업·국제경제연구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
- 시장제도연구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장 및 제도 관련 정책방안을 연구
-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국가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연구를 담당

○ 부설기관

- 경제정보센터: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구)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흡수·통합해 발족, 경제정보 제공, 정책 홍보 및 경제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국제정책대학원: 1998년 3월 개원, 공공 및 민간 부문 실무진의 재교육을 통해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글로벌 정책대학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을 강화해 'G20 대학원'으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05년 1월,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 센터를 흡수·통합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발족,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를 수행
- 국제개발협력센터: 2009년 9월 설립,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도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개발모형을 전수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

### 3. 2011 KDI 연구방향: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하는 연구에 집중

#### □ 2011년 KDI 연구사업 목표

- : ①성장잠재력 확충, ②대내외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③사회통합 제고, ④국제경제 협력

#### 1. 성장잠재력 확충연구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올해의 첫 번째 연구사업 목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도출해 고용률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임.
-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인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2. 대내외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대내외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선별적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 및 대응: 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경제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등의 중점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임.

### 3. 사회통합 제고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방안 연구

- 양극화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복지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제고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선정
- 복지·노동·교육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을 중점과제로 수행할 예정임.

### 4. 국제경제 협력 및 지역경제 통합 연구

- 국제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경제개발 및 남북경협 관련연구를 포함한 국제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통합 연구의 강화가 필요
- 이를 위해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을 중점연구과제로 수행할 계획임.
-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형 개발협력사업의 체계화 및 개도국 대상 정책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

## 4. KDI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 한국경제의 성공은 한마디로 국민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합쳐진 결과이며, 그간 KDI는 한국경제 발전 과정의 한복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해 왔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지금, KDI 또한 정책성과 역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
- KDI는 사회와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필요로 하기 전에 한 발 앞서 정책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한 시각에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적시에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우수한 싱크탱크들도 KDI의 변화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KDI는 개원 40주년을 맞은 2011년 한 해를 21세기 한국경제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끌 최고의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날 역사적 전환점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임.

## 5. 에피소드

- 구본호 제5대 KDI 원장은 “70년대 초반은 온 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시절로, 박봉에 도시락으로 때우는 점심조차 걸러가며 열심히 일하던 경제기획원 등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희생적인 근무 자세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들에 비해 약간 나은 대우를 받던 KDI 수석연구원들은 미안스런 마음에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공에는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실증적 연구 성과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한 KDI의 노력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힘.
- 1972년부터 82년까지 KDI 부원장을 역임한 김광석 前 경희대학교 교수는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폐합과 함께 제기되었던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위기를 공개하면서 “공룡처럼 대형화한 연구소에서는

KDI만의 차별화된 연구기능과 효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거란 판단에 동분서주했고, 결국 통폐합을 막아낼 수 있었다. 덕분에 KDI가 5공화국 이후의 경제발전과정에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함.

- KDI 설립 초기 멤버인 김대영 前 건설부 차관은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75년, 주민등록제도를 실시를 준비하던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고해 통계적 기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식을 고안, 제공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KDI 근무 초창기의 분위기와 보람을 회고함.
-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KDI 수석연구원이던 80년대 중반에는 슈퍼301조를 들이대며 으르델 만큼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심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개방화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기에 ‘개방화의 기수’로 불릴 만큼 열심히 개방화를 부르짖었는데, 때로는 성난 농민들에게 소똥 세례를 받기도 했다”면서, “구체적인 논거와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기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농민들의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고 밝힘.
-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제6공화국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진행되지 못한 금융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1993년 3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KDI가 이경식 부총리에게 보고한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추진방안』과 『금융실명제 추진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에 따라 KDI의 박사 몇몇으로 구성된 팀이 금융실명제 작업의 주역으로 떠올랐다”며, “93년 6월, 금융실명제 추진방안을 은밀하게 마련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에는 부총리택 옆집에서, 이후에는 지인의 사무실에 ‘국제투자연구원’이라는 거짓 간판을 붙여 위장한 채로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과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했다. 근무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평상시처럼 KDI에서 작업해야 했는데, 다른 박사들이 불쑥 찾아오기라도 하면 검토하던 자료를 감추느라 진땀 깨나 흘려야했다”고 말함.

□ 설광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IMF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청사진 작성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1997년 겨울을 회고하면서, “두 달간 소회의실에서 철야했는데, 반복되는 야근과 과중한 스트레스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코피가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많은 동료 연구진의 희생적인 협조로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는데, 보고서를 받아 본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향후 정부정책의 기본틀로 확정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몇 달 동안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다 잊을 정도로 보람을 느꼈다”고 밝힘.